

‘아이다’로 또 하나의 껍질을 깬 뮤지컬배우 이정화

“평범한 제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뮤지컬배우 이정화(28)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예쁜 외모와 청아한 목소리 등으로 뮤지컬계 ‘약혼녀’ 전문 배우로 통하던 그녀가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를 쓰고 있다.

뮤지컬 ‘아이다’(2017년 3월11일까지 잠실 사뮈엘씨어터·제작 신시컴퍼니)가 정점이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인 암네리스를 연기한다.

한 때 사랑했던 남자인 ‘라다메스’ 장군, 자신이 친구로 부른 다른 나라의 공주인 ‘아이다’에 대한 예의를 끝내 지키며 지도자로 성장한다. 이정화는 기존 다른 배우 이미지와 강했던 이 역에 다른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사뮈엘씨어터에서 만난 이정화는 “‘아이다’를 연인 간의 사랑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생각한다”며 “사랑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뤄내는 것”으로 보니 저 역시 굉장히 시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팝의 거장 엘턴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가 호흡을 맞춰 2000년 3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디즈니 뮤지컬 ‘아이다는 주세페 베르디(1813~1901)의 오페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누비아의 공주 아이다와 암네리스 공주 라다메스의 삼각관계를 다룬다. 국내 네 번째 시즌인 이번 무대에서 새삼 눈길을 끄는 건 두 공주의 성장 서사다. 특히 암네리스는 철부지 공주에서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로 자라난다.

“제가 약해보이지만 안에는 단단함과 강렬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뮤지컬 ‘카르멘’에서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카타리나처럼 연약해보였던 캐릭터를 역시 곱게 지냈지만 그 안에 단단하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정화는 사실 이전 시즌에 ‘아이다’로 오디션을 봤다. 하지만 컴퍼니 측에서 다음에는 암네리스로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암네리스의 화려함과 요염함을 대변하는 바이스트롱기스트 수트 영상을 본 그녀는 이내 이 역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아이다’의 매력은 방산의 일각이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드라마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다’로 무엇보다 또 하나의 껍질을 깨고 나가는 듯하다. “제가 진지한 걸 많이 했는데 1막에서 암네리스는 백치 끼가 있는 활발함을 보여주죠. 코믹적이고 신나는 걸로 관객들과 밀접하고 호흡도 하고요.

특히 그 정점인 ‘바이 스트롱기스트 수트’ 신이 연습 때는 잘 해결이 안 됐어요. 농도 조절을 잘해야 2막에서 진지한 모습과 잘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분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면 때문에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지난해 중반 출연한 뮤지컬 ‘체스’의 ‘플로렌스’ 역은 이정화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자신의 첫 여자 주연이었고 강렬한 캐릭터로 그간 연약한 이미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관능적인 캐릭터인 ‘머더 발라드’의 사라, ‘그레고레’의 탈탈한 PD 혜경, ‘삼총사’에서 복수의 칼을 쥔 미모의 여간첩 ‘발라드’ 등 다양한 색깔의 캐릭터를 연기했다.



뮤지컬배우 이정화(28)가 드라마틱한 성장 서사를 쓰고 있다.

하지만 플로렌스를 맡기 전까지 1년간 공백기를 가졌다. 출연이 예정됐던 작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다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는 말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화는 차곡차곡 성장해온 배우다. 2010년 뮤지컬 ‘투란도트’ 앙상블로 데뷔한 뒤 조연 등을 거쳐 주연급으로 성장했다. 특히 ‘투란도트’에서는 로린 역, 투란도트 커버를 맡은데 이어 류 역으로 올해 ‘제10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어워드(DIMF)’에서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경주 출신인 이정화가 뮤지컬에 빠져든 건 중학교 2학년. 당시 대구에서 창작뮤지컬 ‘명성황후’를 본 뒤 “아름답고

안도하는 소리와 애국심을 들끓게 하는 내용에 반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선생이 되기를 원한 부모와 타협을 바계명대 성악과에 진학한 그녀는 2학년 때부터 연극예술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뮤지컬배우를 꿈꿨다. 성악을 전공해 곱고 깨끗한 소리를 내지만 동시에 팝 뮤지컬에도 무리 없는 발성을 갖게 된 이유다.

이처럼 뛰는 재능과 외모까지 지녔지만 이정화는 정작 본인을 평범하다고 여겼다. “평범한 제가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작품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마땅히 찾아왔음에 감사하죠.”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창본’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의 2016년 창극단 하반기 정기공연 ‘창본’이 오는 8일 익산소리예술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바탕 및 창작창극을 선보여 왔던 창극단의 그간 무대와는 달리, 창극의 본바탕이 되는 판소리와 민요를 중심으로 한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창본 공연은 남도잡가 중 ‘화초사거리’를 시작으로, 판소리 ‘흥부가·심청가·춘향가·수궁가’의 눈대목을 입체창(서로 대화를 하듯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펼쳐 보인다.

‘흥부가 중, 흥부 바타는 대목’은 최영리와 소원잡이, ‘심청가 중, 심청사 눈 뜨는 대목’은 황갑도와 김현주가 부르며, 판소리 특유의 한이 서린 소리대목을 들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춘향가 중 사랑과 이별 대목’을 김대일과 정승희가, ‘수궁가 중, 토끼 지라 만나는 대목’을 방수미와 정민영의 재담소리로 펼친다.

입체창을 들려주는 8명의 남녀 소리꾼들은 국립민속국악원의 주요 창작공연에서 주연을 도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 재원들로 이번 공연에서도 판소리와 창극을 넘나들며 흥겨운 소리판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대미는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으로 장식한다. 이 무대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남자 소리꾼들이 대거 출연하며, 적벽가 특유의 웅장하고 긴박감 넘치는 소리를 모두들 반주에 맞춰 들려준다. 공연은 전석 무료 /정해은 기자

전북 호시탐탐 스토리 공모전

대상에 ‘향피리 달빛에 녹아’ 선정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후)은 전북을 소재로 한 이야기 자원 발굴을 목적으로, 순수 창작 스토리를 찾기 위하여 실시한 ‘제2회 호시탐탐 전북 스토리 공모전’에서 이정인씨의 ‘향피리 달빛에 녹아’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국비 공모사업인 ‘2016 지역스토리텔링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총 46편이 응모하였으며 대상과 대상 선비상 등을 포함해 총 12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작 ‘향피리 달빛에 녹아’는 정음사에서 소재를 차용한 것으로,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 돋보이며 향피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영화와 극 등 글·음악이 함께 사용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자신의 스토리를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2017년 전북지역 스토리텔링 파일럿 콘텐츠 사업화 과정이 지원된다.

대상 선비상에는 ‘고운 그대마음에 물들다’가 뽑혔다. 이 작품은 신분의 한계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청춘을 최치원에 투영시켜 청춘들을 위로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 최우수상은 ‘뫼바이 마담’, ‘천년의 꿈’, ‘화랑의 나라-난립버지의 비밀’ 등 3편, 우수상은 ‘파순동 송나물 국밥집’, ‘내사랑고문’, ‘물그림자’, ‘시무해-부자간의 사랑’ 등 4편, 장려상은 ‘별호야 피쳐원’, ‘최치원편’, ‘구월초의 사랑’ 등 3편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일 진흥원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는 창의콘텐츠팀 033)282-2022 /정해은 기자

고창 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고창 모양합창단이 한해를 마무리하며 고창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모양합창단(단장 최용호)은 지난달 29일 저녁 고창문화회관에서 ‘제4회 모양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늦가을의 향기’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연주회는 고창군과 한빛수력원자력 후원으로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이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단원들은 ‘경복궁사랑’, ‘보리밭’, ‘한계령’, ‘음악은 항상 당신과 함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모니에 담아 선보였다.

이날 모양합창단 외에도 ‘국악예술단 고창’, ‘영광합창단’, ‘이카펠레 앙상블’의 특별공연이 함께 펼쳐져 관객들의 흥을

더했다.

최용호 단장은 “요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군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도록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고창을 이루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모양합창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창구가 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음악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모양합창단’은 2000년 재능기부에 뜻을 가진 고창지역 여성들이 ‘여성합창단’으로 창단한 이후 2002년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동아리 한마당’ 개최

오늘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까지 29개 과목 300여명 함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까지 교육 동아리 나눔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여성 역량강화와 취·창업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동아리 활동지원의 일환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속 동아리 ‘맘피어’ 외 총 29개 과목 300여명이 함께하여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행사로 꾸러질 예정이다.

라인댄스 동아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동화구연지도사 동아리 ‘문고를 아리랑’의 흥연예방 인형극, 마술·필라테스 체험, 캘리그라피 연서·식고방향제 만들기, 토탈공예 슈링클스 열쇠제작 체험 등의 공연과 체험행사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커피바리스타 수강생들의 핸드드립 아메리카노, 다도교실 동아리의 전통차 의

꾸기, 제빵 떡, 이색민찬 등 판매·시식 부스가 마련되며, 의상동아리의 작품들도 전시된다.

행사를 통한 물품판매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부 할 계획이다. 신수미 센터장은 “센터 동아리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3)254-3813.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호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2월 1일>